

구체적 조작기 아동의 부처님 개념에 관한 조사연구

Children's Concept of Buddha in the Concrete Operational stage

백 경 임*

Baik, Kyung Im

ABSTRACT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concept of Buddha in 9-12-year-old children who were in the concrete operational stage. The concept of Buddha was investigated in the following dimensions: form, competence and role of Buddha, feelings toward Buddha, and prayer to Buddha. Questionnaire data were gathered from 143 children attending the Bulkwang Sunday School. Statistical analysis was by Chi square.

The children perceived Buddha as (1) a statue or a monk living in their mind and in heaven; and (2) unrestricted and superhuman but different from the creator, keeping an eye on them all the time and everywhere. The role of Buddha was perceived as one of giving blessing with good things to those who pray. The children had diverse feelings of awe, thankfulness, fear and anger toward Buddha. Most of the children were confident that Buddha would respond to their prayers but a few showed some doubt. Children in the concrete operational stage were less credulous than those in the pre-operational stage. More than half of the children reported that they experience the fulfilment of their prayers. The children had deep faith in attaining Buddhahood.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兒童學이 인간의 全人格的 발달을 도모코자 한다면, 인간의 종교적 품성의 개발도 아동학의 중요한 연구 영역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발표된 아동의 종교의식에 관한 연구는 극히 미미하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佛教의 입장에서 행해진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경제기획원의 85년도 인구 주택 센서스(聯合年

鑑, 1988)에 의하면 佛教人은 우리나라 전체 종교 인구의 4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을 지배해 온 대표적 종교이다. 그러므로 불교의 입장에서 아동의 종교의식에 관한 연구는 너무 늦은 감이 있는 만큼 필요하고 또 의의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불교적 입장에서 아동의 종교의식을 살펴 보고자 할 때 먼저 기초연구로서 종교적 신앙의 대상이 되는 부처님 개념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출발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여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 동국대 가정교육학과 조교수

종교적 사고발달등 종교의식에 관한 연구는 Piaget의 사고발달 단계에서 첫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3단계에 그 적용이 가능함은 여러 논문 (Peel, 1959; Goldman, 1964, 1965; Elkind, 1964; Howe, 1978; 이종희, 1986; 송수희, 1983)에서 그 타당성이 검증된 바 있다.

본 연구자도 이에 따라 먼저 만5세의 전조작기 단계 유아의 부처님 개념을 조사(백경임, 1989)해 보았으며, 그 후속연구로서 구체적 조작기 아동들을 연구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불교가정의 구체적 조작기 아동이 부처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느끼고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데 있다.

이 분야에 대한 불교적 입장의先行研究가 없어 비교 고찰치 못하며, 단지 본 연구자가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일부 비교해 보려고 한다. 기독교의 神개념에 대한 선행연구와는 본격적인 비교 고찰을 연구문제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일부 내용만 비교해 볼 생각이다.

2. 연구문제

위에 제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구체적 조작기 아동이 지각하고 있는 부처님의 形體는 어떠한가?

둘째, 구체적 조작기 아동은 부처님의 能力 및 役割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세째, 구체적 조작기 아동이 갖는 부처님에 대한 느낌은 어떠한가?

네째, 구체적 조작기 아동이 부처님에 대해 갖는 기도의 形態는 어떠한가?

다섯째, 成佛信賴 與否에 따라 아동들의 부처

님 개념에는 차이가 있는가?

여섯째, 性別에 따라 아동들의 부처님 개념에는 차이가 있는가?

일곱째, 나이에 따라 아동들의 부처님 개념에는 차이가 있는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특정한 한 사찰의 어린이 법회에 나오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불교 가정의 아동으로 일반화 시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둘째, 종교의식은 지적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생리적 나이보다 지적 나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데(Goldman, 1965) 이곳에선 생리적 나이만을 고려한 셈이다.

세째,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추상적인 질문을 많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즉흥적인 응답을 하였을 우려가 많지 않다.

II. 이론적 배경

1. 부처님 개념의 의미

부처님 개념이란 부처님이라는 용어에 대한 뜻이나 내용을 어떻게 느끼고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부처님이란 역사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석가모니가 真理의 體現者가 되어 불교의 開祖者가 되신 분을 말하며, 동시에 절대적인 佛法의 人格化로서 信心의 대상이 되는 존재를 말한다. 인간석가모니가 고행의 노력에 의해 得道함으로써 佛陀가 되는데, 원래 佛陀 즉 부처님이라는 말은 「깨

다. 따라서 부처나 神을 사람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며,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는 존재로 이해한다.

Clavier(1962, 윤주병, 1986에서 재인용)는 이 의인화는 유아기에 발달하나, 단순한 물질적 신인동형에서부터 완화된 신인동형으로 그리고 다소간 영성적 존재로 진행하면서 7세에 점차 감소하다가 12세경에는 거의 완전히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기독교는 神의 존재를 중심으로 다루는 종교인 만큼 초월자인 神이 인간으로 지각됨은 幼兒·兒童期의 대표적 특징이 되는 셈이다.

불교의 경우 인간 석존이 부처가 된 만큼 의인화의 경향은 더욱 분명하리라 생각된다. 인간다운 친근한 인간 석존의 모습에서 추상적인 真理로서의 부처님 개념이 나름대로 획득되어가는 시기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둘째, 물활론

Piaget는 물활론(Animism)의 발달을 네단계로 나누었는데 이 가운데 구체적조작기에 해당되는 시기는 3·4단계가 된다. 3단계의 아동은 生命의 정의를 자발적으로 움직이며 그것을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 인간이 어떤 행위를 취할 필요가 없는 물체에 국한시킨다고 하였으며, 4단계의 아동은 성인들이 살아있다고 여기는 대상에 대해서만으로 국한 시킨다고 하였다(Brainerd, 1978). 法堂에 모셔진 坐像의 부처님은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며, 또 성인들이 신성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지각할지 의문이다.

어째튼 아동의 物活論的 사고에 힘입어 종교의 식에 있어서 생명이 없는 우주만물에 자비적 지향과 악의적지향을 하게하여 보호적물활론과 징벌적물활론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윤주병, 1986).

징벌적물활론의 경우 직접적인 내재적 징벌은

나이에 따라 감소하고, 신의 징벌을 통한 내재적 정의는 증가한다고 하였다. 또 Godin 등(1959, 윤주병, 1986에서 재인용)의 연구결과는 6~8세의 아동에게는 神의 보호적 물활론과 징벌적물활론 사이에 차이가 별로 없으며 12세까지는 59%까지 점차적으로 神의 보호적 물활론이 증가하고 14세경에는 현저하게 내려간다고 하였다.

세째, 마술주의

마술주의(Magism)의 보편적 정의는 자기의 고유한 이익을 얻기 위해 물질적인 표시나 의식의 사용에 의해 보다 높은 힘을 소유하려는 경향을 말한다(윤주병, 1986). 즉 카톨릭의 성체성사나 불교의 예불이나 기도등의 종교적 행위사이에 마술적인 구성요소가 내재하고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Godin과 Marthe의 연구(1960, 윤주병, 1986에서 재인용)에서는 8세아의 대부분은 물질적인 표시와 영신적인 결과 사이에 자동적인 因果律이 있음을 밝혔다. 11세경에는 극단적인 마술적 해석의 현저한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14세경에는 성사와 물질적효과 사이에 인과율의 관계가 있거나 혹은 표시와 의미사이에 혼동을 자아내는 마술주의의 흔적이 보인다고 하였다.

많은 학자들은 아동의 마술주의가 그 나이의 자기중심적 감정에 연결되고 언어부재나 종교교육부재로 부터 그리고 문화적인 환경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연역하여 해석하는데 Allport(1955)는 어린시기에 이런 마술적인 믿음없이 종교를 발견한 많은 사람은 한꺼번에 종교를 버린다고 하여 종교의식발달의 정상적인 성장과정으로 파악하였다.

IV.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달은 사람」이라는 뜻이며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法을 깨달았다는 것이므로 이 法을 떠나서 부처님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法의 체득에 의해 비로소 의의가 있는 존재인 만큼 부처가 곧 法이요 法이 곧 부처가 되는 것이다.(金東革, 1984).

따라서 부처님이라는 용어는 역사적인 존재로서의 부처님 개념과 함께, 法으로서 真理와 동일시 되는 추상적인 부처님 개념을 동시에 갖는다.

부처님 개념의 내용은 부처님의 形體, 부처님의 能力 및 役割, 부처님에 대한 정서적 느낌, 부처님에 대한 기도의 形態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은 岸本英夫(박인재역, 1983)가 宗教의 內行動으로서의 宗教意識을 정의적인 종교체험의 면과 지적인 종교적 사유의 면으로 구분한 것에 근거한 것이다. 즉 부처님 개념을 종교의식의 한 영역으로 보고, 부처님의 형체와 능력 및 역할을 알아봄으로 해서 종교적 사유에 해당하는 知的인 이해정도를 파악코자 하였으며, 부처님에 대한 느낌과 기도의 형태를 알아봄으로써 情意의 인 체험의 일면을 파악코자 하였다.

그런데 교리적으로 볼 때 기독교의 신앙대상이 神인데 비해, 불교에서 信心의 대상은 불보살의 가르침 즉 스스로 成佛할 수 있다는 확신이 된다(小口偉一・堀一郎監修, 1973).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신심의 대상에서 佛法과 부처를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增容文雄, 崔玄學역, 1983). 따라서 이곳에서는 成佛 가능성에 대한 신뢰수준을 따로 조사하고 부처님 개념으로는 신심의 대상을 부처님으로 규정하여 일반화하였다.

III. 구체적 조작기의 宗教意識

아동에게도 종교의식이 있는가하는 것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白庚壬, 1989).

하나는 종교적 가치판단을 동반하는 종교의식을 기대할 경우로서 청년기 이전에는 종교의식이 없다고 보는 견해이며 또 다른 하나는 아동기에 그 단계에 알맞는 사회의식이 있고 그것이 발전하여 청년기의 종교의식이 되므로 나름대로 종교의식이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본 논문은 물론 후자의 입장에서 성인의 성숙한 종교의식으로 성장 발달해 갈 아동의 인성속에 자리하고 있는 종교적 씨앗으로서의 종교의식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Piaget는 대체로 7~11세를 구체적 조작기라고 불렀다. 이 시기는 그 이전의 전조작기보다 성숙한 인지구조를 가지지만 논리적 사고의 수준은 다음단계인 형식적 조작기 만큼 추상적이지 못하다. Piaget의 지능발달단계에 종교적 사고발달의 적용을 실증시킨 Goldman(1965)은 종교적 사고발달은 경험의 부족등으로 일반사고 발달보다 조금 늦다고 했다. 그는 Guttman 척도법을 사용하여 종교적 사고에 있어서는 정신연령으로 6.6~8.10세 사이에 구체적 조작을 획득하고 13.5~14.2세 사이에 형식적 조작을 획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의 결과에 따라 9~12세를 연구집단으로 하였으며 정신연령으로의 구분은 어려워 생활연령으로 적용시켰다.

이러한 구체적조작기는 性的잠재기라고 불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적 잠재기(Lawrence, 1965)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구체적조작기 아동의 종교의식의 특징은 다음 세가지 내용(윤주병, 1986)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의인화

흔히 기독교에서는 神人同形主義(Anthropomorphism)라고 불리는데 종교적 대상의 모든 것을 인간적인 존재로 빗대어 파악하는 경향을 말한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佛光寺의 어린이法會 회원 가운데 만9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국민학교 3·4·5·6학년 전원인 145명이 연구대상이 되었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2명이 제외되어 143명의 자료가 분석에 쓰어졌다. 연령을 조사하였으나 본조사일이 2월 4일이었기 때문에 3월로 시작하는 학제와 차이가 별로 없어 학년별로 연령을 삼기로 하였다.

성별 연령별 피험자수는 다음 표1과 같다.

〈표 1〉 성별 연령별 피험자수

성별	연령				
	9	10	11	12	전체
남	17	21	11	8	57
여	32	25	16	13	86
전체	49	46	27	21	143

佛光寺 어린이법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어린이 법회의 참석자가 많으며 체계적인 운

영으로 가족과 함께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아동이 많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2. 측정도구 및 측정방법

구체적 조작기 아동의 부처님 개념을 조사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본인이 작성하였다. 부처님 개념의 네 범주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작성된 질문지는 1988년 10월 4일 1차 예비조사를 걸쳐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였으며 1990년 1월 28일 2차 예비조사를 거쳐 2월 4일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내적사고의 자유로운 응답을 위해 개방식 질문(open question)이 많이 포함된 점이 본 질문지의 특징이다.

실시방법은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집단으로 질문에 답하도록 하였으며 여려명의 보조자가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아 응답을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 부처님개념의 범주 및 분석내용

부처님개념의 범주	문항번호	문 항 내 용
부처님의 형체	4	학생의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부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5	부처님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분은?
	6	부처님은 사람처럼 여자이거나 남자입니까?
	7	(6번대답에 대해) 왜 그렇게 생각되었나요?
	8	부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부처님의 능력	9	부처님은 학생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10	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까?
	11-1	부처님은 하늘을 날아 다닐 수 있다.
	-2	부처님은 신통력(마술)을 부릴수 있다.
	-3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볼수 있다.
	-4	부처님이 풀과 나무를 자라게 한다.

및 역 할	-5	부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6	착한 사람에게 좋은일이 생기게 해준다.
	-7	나쁜 사람에게 벌을 내린다.
	-8	나쁜 사람을 용서해 준다.
	-9	절을 하면 복을 내려준다.
	-10	사람을 태어나게 할 수 있다.
	-11	병을 고쳐줄 수 있다.
	12	부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13	(12-1번의 경우) 어떤 일일까요?
	14	할머니나 아버지 혹은 어머니는 왜 절에 가실까요?
	22	부처님의 어떤점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23	부처님의 어떤점이 마음에 안든다고 생각합니까?
부처님에 대한 느 낌	15	부처님에 대해 특별히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16	부처님에 대해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17	부처님에 대해 고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18	부처님에 대해 무섭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19	부처님에 대해 화가 난 적이 있습니까?
	20	학생은 어떤때 부처님이 떠오르거나 생각납니까?
	21	(20번의 경우) 이 때의 느낌은?
부처님에 대한 기도의 형태	25	학생이 절을하는 곳에는 부처님이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26	(25-1번의 경우) 부처님의 계심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27	절하며 기도한 것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28	(27-1번의 경우) 기도가 이루어진것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29	(27-2번의 경우) 기도는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제기한 문제의 검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PC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1) 개방식 질문은 연구자가 내용분석하여 유형을 나누었으며 모든 문항은 유형별로 빈도(%)가 구해졌다.

2) 成佛 가능성 신뢰여부, 性別 및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 χ^2 검증을 하였다.

V. 결과 및 해석

1. 불교에 대한 일반적 배경

부처님 개념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대상

아동들의 불교에 대한 일반적 배경을 알기 위해 조사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 식구 중 불교를 믿는 사람은?”이라는 질문의 응답 결과는 “가족모두가 불교인”이라는 응답이 압도적(93.7%)으로 많아서 불교가정이 전적인 배경이 됨을 알 수 있었다.

“학생에게 부처님에 대해 가장 많이 알게 해 주신 분은?”을 물어 불교에 대해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가를 알아 보았다. 그 결과는 “가족”이 46.9%(67)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불교 가정 아동으로서 당연한 수치(Argyle and Beit-Hallahmi, 1975 참고)를 보여주었으며 “스님”이 24.5%(35), 법사님이 22.4% (32)를 나타내 법회참석자에게 미치는 성직자의

영향이 적지않아 주목할 만하다.

“학생의 종교를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라는 문항에는 대다수(83.9%)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불교를 자신의 종교로 수용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아동의 불교에 대한 배경은 불교가정에서 부모나 성직자의 영향으로 불교를 알게되며 스스로 불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아동이 주류를 이룬다.

2. 부처님의 형체

“학생의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부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마음속의 부처님 모습

변 인	법당의 부처님	스 님	좋은사람	부 모	기 타	합 계
빈도 (%)	63(44.1)	32(22.4)	17(11.9)	16(11.2)	8(5.6)	136(100)

마음속의 부처님 모습은 법당의 부처님 모습이 가장 많아 坐像의 부처님을 모셔놓고 종교의식을 갖기 때문의 영향으로 Harms(1944)가 말한 이 시기 아동의 실체론적 지각을 드러내는 결과라고 해석된다. 스님이나 부모나 또 항상 웃는 모습, 환한사람, 언제나 착한사람으로 표현한 좋은 사람의 모습에서 의인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겠

다.

“부처님과 가장 비슷한 분은?”이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 표 2-2와 같이 매우 다양하였다. 그러나 “스님”이라고 응답한 유아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일부는 “우리 절 큰스님”으로 특정인을 지칭하여 성직자와 부처님을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표 2-2〉 마음속의 부처님 모습

변 인	스 님	부 모	비 범 인	특 정 인	기 타	합 계
빈도 (%)	89(62.2)	22(15.4)	9(6.3)	8(5.6)	1(0.7)	135(100)

“부처님은 사람처럼 여자이거나 남자입니까?”라는 질문에 과반수(63.6%)가 “남자”로 지각하고 “여자도 되고 남자도 된다” 또는 “여자도 남자도 아니다”라는 수치도 21%(30)에 이른다. “여자”로 지각한 아동이 2명(1.4%)이었으며 나머지(12.5%)는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위의 수치를 유아를 대상으로 한 경우(백경임, 1989)와 비교하면, 유아들은 76.6%가 남자로 지

각하고 4.7%만이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된다고 응답하여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인간 석존의 모습에서 法의 인격화한 모습으로 즉 의인화된 지각에서 추상적인 초월자의 이미지를 갖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부처님의 성별에 대해 왜 이렇게 생각하였는지 그 이유를 물어본 바의 응답결과는 다음표 2-3과 같다.

〈표 2-3〉 부처님 성별의 이유

변 인	학 습 상	형 태 상	저 절 로	실 달 태 영 향	기 타	모르겠다	합 계
빈도 (%)	42(32.6)	30(23.3)	23(17.8)	15(11.6)	10(7.8)	9(7.0)	129(100)

“책에서 읽었다” “그렇게 배웠다”등의 학습상의 이유와 “남자같이 생겼다” “수염이 있다”등의 형태상의 이유가 많으며 “왕자로 태어났으므로” 등 실달태자의 영향을 포함하여 인간 석존의 모습에서 기인함을 알 수 있었다. 부처님은 여자로 생각한 2명은 여아들이었는데 “입술이 뺨 같고 여자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등으로 볼 때 자기 중심적 사고를 엿볼 수 있으나 기독교에서의 연

구(윤주병, 1985)에서는 여아의 78%가 아동하느님을 女兒로 감지했다는 것에서 보다 정밀한 연구가 뒤따라야겠지만, 본 연구에서 여아의 대부분이 남자로 지각했다는 점에서 또 인간 석존의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神개념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드러낸다.

“부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의 응답결과는 표2-4와 같다.

〈표 2-4〉 부처님의 소재

변 인	내 마음 속	하늘에	절 또는 법당에	기 타	합 계
빈도 (%)	100(69.9)	32(22.4)	8(5.6)	3(2.1)	143(100)

“내마음속에 계신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고 “하늘에 계신다”는 응답과 함께 대부분을 차지한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경우 “절 또는 법당에 계신다”가 가장 많은 57.8%이며 “내마음속”은 9.4%밖에 응답치 않아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의미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떠나 상징

성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위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구체적 조작기 아동들은 부처님의 형체에 대해 법당의 부처님이나 스님의 모습이며 남성으로 지각하며 자신의 마음 속이나 하늘나라에 살고 있다고 이해하는 율이

높다. 이러한 양상은 의인화 경향을 띠면서도 추상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종교적 가르침을 수용하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3. 부처님의 능력 및 역할

〈표 3-1〉 알고 있다고 한 경우의 이유

범 주	범 주 의 근 거	빈도 (%)
마음속에 계시니까		57(45.2)
부처님의 능력	모든 것을 아시므로, 초능력자이므로	50(39.7)
자신의 행동적 이유	절에 많이 왔으니까, 부처님을 믿으므로	14(11.1)
기 타		5(4.0)
합 계		126(100)

대부분의 아동은 부처님이 자신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는 “마음속에 계시니까”와 부처님의 능력 등 속성적인 이유를 들고 있다. “모

“부처님은 학생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인 88.1%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왜 그렇게 생각되었는지의 응답결과는 표3-1과 같다.

〈표 3-2〉 부처님이 할 수 있는 일

변 인	예	아 니 오	합 계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한다.	130(90.9)	13(9.1)	143(100)
착한 사람에게 좋은일 생기게 해준다.	130(90.9)	13(9.1)	143(100)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126(88.1)	16(11.2)	143(100)
병을 고쳐 줄 수 있다.	101(70.6)	42(35.4)	143(100)
나쁜 사람을 용서해 준다.	98(68.5)	45(31.5)	143(100)
신통력(마술)을 부릴 수 있다.	95(66.4)	48(33.6)	143(100)
나쁜사람에게 벌을 내린다.	74(51.7)	69(48.3)	143(100)
하늘을 날 수 있다.	49(34.3)	94(65.7)	143(100)
아기를 태어나게 할 수 있다.	41(28.7)	102(71.3)	143(100)
풀과 나무를 자라게 한다.	35(24.5)	108(75.5)	143(100)
이 세상을 만드셨다.	25(17.5)	118(82.5)	143(100)
절하면 복을 준다.	24(16.8)	119(83.2)	143(100)

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 내용은 “마음속에 있으므로 다 본다”든지 “기도할 때 이름을 말했으니까”등 구체적인 상황으로 논리를 전개하여 추상적사고의 한계를 드러낸다.

아동이 지각하는 부처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알기위한 12문항의 응답결과는 다음표 3-2와 같다.

“우리를 바르게 살게한다”와 “착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해 준다”등의 문항이 가장 높은 수치로 응답되어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역할관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관용의 부처님 개념(나쁜 사람이 기도하면 용서해 준다)이 정별적 부처님 개념(나쁜사람에게 별을 내린다)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유아기때와는 반대의 응답을 보여준다. 이점은 정별적 부모의 자녀는 정별적 神의 개념을 갖고, 허용적 부모의 자녀는 허용적 神의 개념을 갖는다는 연구(Lambert, Trianolis & Wolff 1959; Micharel & Benyamin 1975에서 재인용)결과와 비교하여 가정환경변인뿐 아니라 연령

과 교리학습여부와도 관련된 연구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풀과 나무를 자라게 한다” “이 세상을 만드셨다”에 대한 응답치는 매우 낮아 神에 대한 창조주 이미지와는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드러낸다. 기복적인 내용에 대한 응답치는 대체로 낮아서 역시 보다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부처님이 할 수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문항에서는 42%(60)가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그 이유로는 11%(16)가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지구를 만들 수 없다”등 자연현상에 반하는 내용들이며 나머지는 비윤리적인 내용등으로 분류되었다.

가족 중 불교인을 물어 그들이 왜 절에 갈까하는 것을 물어 아동이 지각한 불교의 역할을 조사해 본 결과는 다음표 3-3과 같이 기복에 비해 정진의 이유가 더 많았다. “나쁜 마음을 씻기 위해” 등은 구체적 조작기의 종교의식의 특징인 마술주의적 경향을 잘 나타내는 응답이라고 하겠다.

〈표 3-3〉 절에 가는 이유

N=143

범 주	범 주 의 근 거	빈도(%)
정 진	나쁜 마음을 씻기위해, 올바르게 살기위해	81(56.6)
기 복	우리 공부 잘 하라고, 잘 살기 위해서	49(34.3)
모르겠다		13(9.1)

부처님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물어 본 바 좋은 점으로는 37.8%가 “도를 깨친점” “진리가 좋다”등 속성적이유를 들었고 34.3%는 생활에의 도움을 들었다. 부처님의 나쁜 점에 대한 응답에서는 68.5%(98)가 “없다”고 했으며 일부(8.1%)는 기도불응답의 이유를 들었고 “설법이 어렵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항상 가만히 있는 점” “귀가 이상하다” “우리나라에 태어나지 않은 점”등의 어린이다운 응답도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부처님을 속성적으로 좋다고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들이 부처님에 대한 초인간적인 사고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추상적 인지에 어려

음을 나타내고 있다. 기도한만큼의 응답을 요구 할 수 있는 상호거래적인 역할관도 보여진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구체적 조작기 아동이 지각하는 부처님은 언제 어디서나 인간을 지켜 보며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지만 창조주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다. 부처님은 “좋은 가르침을 주는 분”이라는 개념이 강하였으며 기도에 대하여는 상호거래적인 역할관도 일부 나타났다.

응답의 여러 곳에서 부처님에 대한 초인간적인

사고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추상적인 인지에 어려움을 나타내어 구체적 조작기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다고 하겠다.

4. 부처님에 대한 느낌

부처님에 대한 정서적 느낌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의 응답결과는 다음 표4-1과 같이 정리되었다.

〈표 4-1〉 부처님에 대한 감정별 경험 유무

변 인	경 험 유	경 험 무	합 계
고 마 움	133(93.0)	10(7.0)	143(100)
경 외 감	115(80.4)	28(19.6)	143(100)
죄 책 감	111(77.6)	32(22.4)	143(100)
화 날	44(30.8)	99(69.2)	143(100)
두 려 움	11(7.7)	132(92.3)	143(100)

“고마움” “경외감”등의 호감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죄책감” 경험도 상당수(77.6%)에 이른다. 유아들의 경우와 비교하면 두려움의 경험은 18.8%에서 7.7%로 줄어든 것에 비해 화난 경험은 4.7%에서 30.8%로 크게 높아져 주목된다. 이점 역시 보다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종교적 대상에 대한 다양한 경험에 따른 필수적인 과정인 것 같다.

부처님에 대한 정서적 느낌의 성격을 알기 위하여 “학생은 어떤 때 부처님이 떠 오르거나 생각

납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 때의 느낌을 물어보았다.

부처님이 생각날 경우는 시험볼때, 위험할때, 도움이 필요할때등 어려움에 부딪혔을때가 42.8%(59)로 가장 많았으며, 절을 할때 법당에 있을때 등 불교와 관련된 일을 할때가 28.3%(39)였으며, 기타는 죄책감이 들 때, 기쁠때, 슬플때 등이었다. 이때의 부처님에 대한 느낌은 다음 표 4-2와 같다.

〈표 4-2〉 부처님이 생각날 때의 느낌

변 인	의지하고싶다	편안하다	기쁘다	고맙다	무섭다	죄송하다	놀랍다	기 타	합 계
빈도 (%)	38(28.1)	35(25.9)	20(14.8)	12.(8.5)	9(6.7)	8(5.9)	5(3.5)	8(5.9)	135(100)

다양한 반응이며 의지하고 싶다, 편안하다, 기쁘다등 긍정적 느낌이 대부분이었다.

부처님에 대한 구체적 조작기 아동의 느낌은 고마움·경외감등의 호감경험을 포함하여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있다. 성장에 따른 필수적인 과정으로 보인다. 부처님이 생각날 경우는 어려움에 부딪혔을때가 가장 많았으며, 그때의 느낌은 의지하고 싶다등 긍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렇다면 이 시기의 아동들이 성숙한 종교의식을 가질 수 없을지라도 나름대로 종교가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부모의 종교를 그대로 수용하여 성장하면서 종교에 대한 많은 비판과 성찰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느낌의 경험들이 종교를 뿌리내리게 하는 씨앗이 될 것으로 보인다.

5. 부처님에 관한 기도의 형태

아동이 기도할 때의 내면적인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 “학생이 절을 하는 곳에는 부처님이 계시다고 생각합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대다수(77.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부처님이 계시다고 응답한 아동에게 “어떻게 부처님이 계심을 알았나요?”하고 물었을 때 “그런생각이 든다” “저절로”등 마음의 느낌이 가장 많았고(77.5%), “부처님이 있는 방이니까” “법당이니까”등 물리적

부처상을 의미하는 경우가 8.1%(9), “그렇게 배웠다”가 5.4%(6)등 이었다.

“마음의 느낌”은 유아기 때(32.8%)에 비해 급증하여 추상적인 이해가 나름대로 많이 증가함을 나타낸다. 그러나 부처상의 물리적인 존재를 그대로 부처님으로 지각함은 물활론적 이해의 단면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학생이 절하며 기도한 것을 이루어질까요?”로 기도성취여부를 물어본 결과 과반수(52.4%)가 그렇다고 대답하여 비교적 기도의 응답을 신뢰하고 있었으며 모르겠다(37.8%)와 이루어지지 않는다(9.8%)의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이점은 유아기 때 무조건 신뢰를 하는 경신성적 특성(윤주병, 1986)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기도가 성취되지 않는다고 한 14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즉 50%인 7명이 스스로의 노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나머지 6명은 불성실한 기도태도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응답 역시 불교가 自力を 강조하는 종교이기 때문인지 비교연구의 문제체기를 하게하고, 불성실한 기도태도 때문이라는 응답은 기도와 성취에 대한 보옹적 관념을 나타내는 가치관으로 보인다.

기도성취여부를 어떻게 알았는가의 결과는 다음 표5-1과 같다.

〈표 5-1〉 기도 성취 파악 이유

변 인	경험에 의해	저 절 로	부처님의 속성	기 타	모르겠다	합 계
빈도 (%)	45(60)	12(16)	8(10.7)	3(4)	7(5.3)	75(100)

“경험에 의해서”가 과반수가 넘어 상당수의 아동이 나름대로 기도성취에 대한 경험을 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어 놀라웠다. 아동들은 종교학적

관념을 이해하지 못한채 기도성취를 경험하게 되므로 이 시기의 아동에게도 단계에 알맞는 종교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6. 成佛신뢰도 및 그에 따른 부처님 개념의 차이

佛教에서의 信心은 佛性에 대한 자각이 그 핵심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불성신뢰여부를 조사하고, 그에 따라 부처님개념에 차이가 있는가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나에게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부처님 씨앗)

〈표 6-1〉 성불 신뢰 여부

변 인	반드시 그렇다	노력하면 그럴 것이다	불가능하다	모르겠다	합 계
빈도 (%)	9(6.3)	113(79.0)	5(3.5)	16(11.2)	143(100)

佛性의 인지율은 과반수에 불과하지만 成佛가 능성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수치를 타나내고 있다. 자존감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한 영역으로 보이며, 결과치는 불교에 대한 바른 信心을 가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불신뢰여부에 따른 부처님 개념의 차이는 χ^2 검증 결과 부처님의 능력 및 역할에 관한 범주에서 “우리를 올바르게 살게한다”와 “부처님이 학생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문항에서 다음 표 6-2와 6-3과 같은 수치로 유의미 하였다.

〈표 6-2〉 성불신뢰여부에 따른 부처님의 인지여부

인지여부	성 불 신 뢰 구 분		
	성불신뢰		합 계
	N (%)	N (%)	
그 렇 다	111(91)	15(71.4)	126
회의 및 부정	11(9)	6(28.6)	17
합 계	122(100)	21(100)	143

$\chi^2=4.81$ df=1 P<.05

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하고 물어본 결과 과반수(52.4%)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나에게 불성이 있다는 말을 믿을 수 있는지요 즉 이다음에 훌륭해지면 부처님과 같아질 수 있다고 믿는지요?”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 표6-1과 같다.

〈표 6-3〉 성불신뢰여부에 따른 正道역할 인지수

역할구분	성 불 신 뢰 구 분		
	성불신뢰		합 계
	N (%)	N (%)	
正道로 이끈다	114(93.4)	16(76.2)	132
아 니 다	8(6.6)	5(23.8)	13
합 계	122(100)	21(100)	143

$\chi^2=4.53$ df=1 P<.05

성불신뢰를 하는 편이 부처님이 우리를 올바르게 살게한다고 인지하는 율이 유의미($P<.05$)하게 높으며, 성불신뢰를 하는 편이 부처님이 자신(학생)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율이 유의미($P<.05$)하게 높다는 것이다. 본 결과만으로는 해석이 어려워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7. 성별·연령별 부처님 개념의 차이

성별에 따른 부처님 개념의 차이는 “사람들은 (할머니나 어머니등) 왜 절에 갈까?”하는 문항에서 다음 표7-1과 같이 유의미하였으며 다른

문항에서는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표 7-1〉 성별에 따른 절에 다니는 이유

기독교형	성 별		합 계
	남 자 N(%)	여 자 N(%)	
정 진	23(46)	58(72.5)	81
기 복	27(54)	22(27.5)	49
합 계	50(100)	80(100)	130

$$\chi^2 = 8.11 \text{ df} = 1 \text{ P} < .01$$

여아들이 남아에 비해 祈福보다 精進을 이유로 절에 다니고 있다고 유의미($P < .01$)하게 지각하고 있었다. 종교의식에서 男兒는 연장자의 요구

〈표 7-2〉 연령에 따른 부처님에 대한 화난 경험 여부

경험여부	연 령				합 계
	9 세 N(%)	10 세 N(%)	11 세 N(%)	12 세 N(%)	
유	5(10.2)	18(39.1)	13(48.1)	8(38.1)	44
무	44(89.8)	28(60.9)	14(51.8)	13(61.9)	99
합 계	49(100)	46(100)	27(99.9)	21(100)	143

$$\chi^2 = 15.6 \text{ df} = 3 \text{ P} < .05$$

VI. 결 론

구체적 조작기 아동의 부처님개념을 조사하기 위하여 9~12세의 아동 1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부처님개념을 종교의식으로 한 영역으로 보고 지적인 면과 정의적인 면으로 구분하였다

부처님에 대한 지적인 이해수준을 알기 위하여 부처님의 형체와 능력 및 역할을 조사하였으며, 정의적인 면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처님에 대한 느낌과 기도의 형태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다

에 따르는 복종의 의식이 강한데 비해 女兒는 부모나 교사의 행동을 모방하여 배우는 모방의식이 강하다는 연구(松本慈, 1980)등과 관련된 보다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연령에 따른 부처님 개념의 차이는 부처님에 대한 느낌의 범주에서 “부처님에게 화가 난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서 다음 표 7-2와 같은 수치로 유의미하였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화난 경험의 아동수가 대체로 증가하였는데, 11세가 최고치를 이루고 다시 감소하는 추세도 볼 수 있다. 다양한 경험의 증가만으로는 해석이 미흡하여 역시 보다 정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음과 같다.

첫째, 부처님의 형체는 법당의 부처님이나 스님의 모습이며 남성으로 지각하는 율이 높으며 자신의 마음속이나 하늘나라에 살고있다고 이해한다. 즉 여전히 의인화경향을 띠면서도 교리의 가르침에 적응해가는 모습과 추상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둘째, 부처님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지켜보며 초인적인 능력자로서 파악되지만 창조주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다.

세째, 부처님의 역할은 “좋은 가르침을 주는 분”이라는 개념이 강하였으나 기도한 만큼의 응답을 요구하는 상호거래적 역할관도 일부 나타난다.

네째, 부처님에 대한 느낌은 고마움 경외감등의 호감경험을 포함하여 두려움 화남까지 다양한 느낌을 경험하였다.

다섯째, 부처님이 생각날 경우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가 가장 많았으며, 그때의 느낌은 “의지하고 싶다”가 많아 성숙한 종교의식을 갖지 못하는 아동기에도 나름대로 종교적정조를 체험한다고 하겠다.

여섯째,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는 대체로 신뢰하고 있었으나 회의를 갖는 아동도 적지 않아 유아기 때의 종교적 경신성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일곱째, 기도성취에 대한 경험이 과반수가 넘어 추상적사고를 요하는 종교적 사고를 하기 전에도 나름대로의 종교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여덟째, 기도불성취 이유의 분석에서는 기도와 성취에 대한 보응적관념을 나타내는 가치관과 함께 自力を 강조하는 가치관도 드러내고 있다.

아홉째, 成佛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 佛教에 대한 바른信心을 가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겠다.

열째, 성불신뢰를 하는 집단이 부처님이 우리를 올바르게 살게한다는 올과 부처님이 자신(학생)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올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열한번째, 女兒들이 男兒에 비해 祈福보다 精進을 이유로 절에 다닌다고 유의미하게 지각하였다.

열두번째,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처님께 화난

경험이 유의미하게 많아서 점차 다양한 감정적 경험을 하게됨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구체적조작기 아동의 부처님 개념은 유아들의 경우에 비해 많은 변화를 보였다. 논리적으로 상당히 발전하였고 다양한 종교적 경험도 나타나지만 추상개념에 대한 문자적해석이나 물리적 지각을 여전히 보여 구체적조작기의 한계를 드러내 주어 역시 Piaget의 발달단계에 부합된을 알 수 있었다.

아동들의 종교의식의 발달을 파악키 위하여 앞으로 부처님개념 뿐아니라 그밖의 종교의식에 관하여도 연구가 이루어져야겠으며 他 종교와의 비교연구로서 보다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동이 성장해감에 따라 그들의 종교의식은 어떻게 변화·발전되어 가는지에 대한 후속연구도 절실히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金東華 (1984). 「佛教學概論」 서울 : 寶蓮閣
 白庚壬 (1989). 불교가정 幼兒의 부처님개념에
 관한 연구 동국대논문집 제8집
 송수희 (1983). 아동의 神개념 조사연구, 이화여
 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聯合年鑑 (1988). 서울聯合通信, 통권8권
 윤주병 (1986). 「종교심리학」 서울 : 서광사
 이종희 (1986). 한국아동의 하느님개념발달에 관
 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岸本英夫, 朴仁載譯 (1983). 「종교학」 서울 : 김영
 사
 増谷文雄, 崔玄學譯 (1983). 「불교와 기독교의
 비교연구」 서울 : 진여원
 Allport, 박근원譯 (1985). 「인간과 종교」 서울 :

양서각

- 小口偉一, 堀一郎監修 (1973). 「宗教學辭典」東京 : 東京大學出版會.
- 松本滋 (1980). 「宗教心理學」東京 : 東京大學出版會.
- Argyle, M. and Beit-Hallahimi (1975). The social psychology of religion, London and Boston : Routledge & Kegan Paul.
- Brainerd, C. J. (1978). Piaget's theory of intelligence. N. J.:Prentice Hall.
- Elkind, D. (1964). Piaget's semi-clinical interview and the study of spontaneous relig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 (1). 40~47.
- Goldman, R. J. (1964). Researches in religious thinking. Educational Research 6 2 139~155.
(1965). The application of Piaget's schema of operational thinking to religious story data by means of the Guttman scalogram. The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5 (2) 158~170.
- Harms, E. (1944). The development of religious experience in children.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 112~122.
- Howe, L. T. (1978). Religious understanding from a Piagetian perspective. Religious Education 73(5) 569~581.
- Lawrence, P. J. (1965). Children's thinking about religion : A study of concrete operational thinking. Religious Education 60(2) 111~116.
- Peel, E. A. (1959). Experimental examination of some of Piaget's schemata concerning children's perception and thinking and a discussion of their educational significance.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9(II) 89~103.